

흐르는 역사의 왕

* 10/25(월) 열왕기하 ⑥ 17-19장

분열왕국 1-17장		유다왕국 18-25장
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1장 엘리야의 승천, 엘리사의 계승 2장 이스라엘 왕 여호람 3장 엘리사의 기적들 4장 엘리사의 이야기 5장-8:15 유다 왕 여호람 8:16-24 유다 왕 아하시야, 이스라엘 왕 예후 8:25-10장 유다 여왕 아달랴 11장 유다 왕 요아스 12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13:1-9 이스라엘 왕 요아스 13:10-25	유다 왕 아마샤 14:1-22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14:23-29 유다 왕 아사라 15:1-7 이스라엘 왕 스가라 15:8-12 이스라엘 왕 살룸 15:13-16 이스라엘 왕 므나헴 15:17-22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15:23-26 이스라엘 왕 베가 15:27-31 유다 왕 요담 15:32-38 유다 왕 아하스 16장 ▶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17장 · 여로보암의 길 / 9년 통치 · 사마리아 함락	▶ 유다 왕 히스기야 18-20장 · 다윗의 길 / 29년 통치 · 앗수르 왕 산헤립, 유다 침공 · 랍사게의 전술 · 히스기야의 기도, 이사야의 예언 · 왕의 병/기도/15년 생명연장/징표 유다 왕 므낫세 21:1-18 유다 왕 아몬 21:19-26 유다 왕 요시야 22장-23:30 유다 왕 여호아하스 23:31-35 유다 왕 여호야김 23:36-24:7 유다 왕 여호야킨 24:8-17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, 멸망 24:18-25장

Before 즐치며 읽기

역사의 주관자 되시는
하나님을 묵상하며
통독해 보십시오.

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만,
이전 왕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(17:2).

호세아, 그의 이름은 ‘구원’입니다.
이름값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.

After 묵상하기

나를 향한
<여호와와 열심>은
무엇입니까?

• 심은 대로, 역사(History)는 흐른다.

바치던 조공을 중단한 것은
전쟁의 선포나 다름없습니다.
앗수르의 손을 놓고, 애굽 손을 잡았습니다.
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.

<왕>은 나라를 대표합니다. 왕이 죄를 범하는데,
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리가 없습니다.

왕은 투옥됩니다. 사마리아는 점령당합니다.
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(17:4-6).

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이름을 남깁니다.

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
두란노 HOW주석
성서유니온 열왕기
통성경 길라잡이

전쟁의 패(敗)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.

“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(출 20:3, 신 5:7).”

여호와와 명령을 파렴치하게 무시했습니다. 이방 사람들과 같아졌습니다(17:7-17).

이방인 같은 그들이 머물 땅은, 이스라엘에 더 이상 없습니다.

죄에서 ‘떠나지’ 않아, 이스라엘 땅을 ‘떠나게’ 되었습니다.

북이스라엘 멸망의 실질적인 이유입니다.

“유다도 … (17:19).” 남유다의 미래도 밝지 않습니다.

“유다야, 너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(호 6:11, 공동번역).” 다윗의 등불이 흔들립니다.

• **그 뜻대로, 역사(His story)는 흐른다.**

풍전등화(風前燈火) 유다에 ‘다윗에 필적하는’ 왕이 나타납니다(18:3-8).

유다의 선한 왕들도 산당은 그대로 두었습니다(왕상 15:14, 22:43, 왕하 12:3, 14:4, 15:4, 35).

마침내, 산당들을 제거합니다. 낫뱀은 낫조각이 되어 버립니다.

여호와를 ‘가장 신뢰하는’ 왕입니다(18:5).

신뢰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.

다윗 외에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한,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(18:7).

그런데, 앗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,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니,
그 앞에 작아져버립니다. 성전과 왕궁을 탈탈 털어 바칩니다(18:14-16).

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업적, ‘윗못 수도 곁’에서

모두가 알아듣는 말로,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(18:17-35, 20:20).

<총독> 다르단, <환관장> 랍사리스, <집사장> 랍사게 순입니다.

‘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’가 유다의 ‘가장 높은 자’에게

대왕 또는 왕이라는 호칭을 두고, ‘이름만’ 부르며 조롱합니다(18:19).

믿음에 대한 조롱, 여호와께 대한 도전입니다.

<여호와>를 믿을 것인가, <대왕> 앗수르를 따를 것인가.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.

왕이 여호와와 성전에 스스로 올라가, 주님께만 기도를 드립니다(19:14-19, 사 37:14-20).

“유다 ‘도’ … (17:19).”, “여호와 ‘도’ 경외하고 … (17:33).”

‘도’의 신앙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. 필요한 것은 여호와 ‘만’의 신앙입니다.

믿음에 타협은 없습니다. 공중에 흩어질, 부질없는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.

문제는 여호와와 주권에 있습니다(19:34-37, 사 37:35-38).